제58회
법의 날 기념식

축 사

2021. 4. 23.

헌법재판소장 유남석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58회 법의 날을 맞아, 먼저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 분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법치주의의 헌법적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새겨 봅니다.

과거 인류 역사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법은 위에서 내려와 준수할 것을 사람들에게 강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유를 더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치가 강조된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와 정반대로, 지금의 입헌민주국가에서 법치주의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개인마다 가지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 법치주의 원리는 국민주권 및 민주주의 원리와 더불어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상위의 수단 중 하나라는 헌법적 위상을 부여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는 형식적인 법치를 넘어, 법의 내용과 그 적용에서 이 시대의 화두인 공정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평등을 담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앞으로도 주어진 소임에 따라, 법의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지, 헌법의 정신과 가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세심히 살펴, 실질적 법치주의를 더욱 충실히 구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법과 법치주의의 참뜻은,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존엄과 행복을 누리기 위한 헌법적 틀이라는 점을 다 같이 생각해 보는 법의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